

連載：

# 韓國建築의 絶對特殊性에 関한 考察〔Ⅱ〕

朴彦坤 — 弘益大學校工科大学建築學科 副教授

金東旭 — 京畿大學建築工學科 專任講師

## A STUDY OF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E

Park, Eon Kon — Hong Ik University Prof.

Kim, Dong Uk — Kyung Ki University Instructor

### 2. 都城과 伽藍

#### 1. 머리말

方向이나 位置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건축에서도 절대적으로 응해 왔음이 우리 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인접국가들도 마찬가지이면, 특히 우리의 경우는 중국에서 그 基準을 가져와 더욱 盛況시켰던 것이다.

기준이 되는 點·線·面이 상대적으로 갖게되는 위치나 방향은 天文學·道學을 기본으로 하여 風水地理說을 우리의 생활에 깊게 뿌리를 내려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절대대칭이나 축을 영크리지 않는 중국의 건축특성도 바로 아래의 표에서와 같은 규칙을 따름에서인 것이다.

#### 方位와 位置의 意味規定

	左	前	中央	右	後
意義	和平	喜悅	皇帝	悲哀	壯嚴
四靈	青龍	朱雀	皇宮	白虎	玄武
象德	太子	朝	皇帝	皇后	市
四季	春	夏	仲夏	秋	冬
顏色	青	紅	黃	白	黑
方向	東	南	中	西	北
五行	木	火	土	金	水

五行으로 인생의 길흉을 점치기도 했던 중국에서는 宮殿의 구성을 方向과 象德으로 정하였다. 그 기원은 天

체의 五星産에서 가져왔고 생존의 인간만이 아닌 死者를 위한 무덤에서도 地勢와 方位를 四靈에 의해 청룡·백호·주작·현무의 형태로 공간구성을 이루게 하였다.

이와같은 양택과 음택은, 위치와 방향이 건축의 工學性을 지배한다는 思想背景이 되어 建築空間計劃에 우선적으로 배려되고 있음이 고대로 올라갈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背山前川의 원리로 구성된 마을과 가옥을 자연에 조화시킨 스카이라인이 바로 자연의 變理를 따른 우리 건축의 특성이 되었다. 이것이 風水地理이며 건축공간의 구성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이룩하는 構成部材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결국 건축의 기본계획이 주어진 조건을 이해하고 적응시키는 것이며, 그 만족은 부재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계획과의 역과정에서 실천되었다. 그 실례를 韓國에서의 都城計劃과 伽藍構成計劃으로 들면서 계획방법의 변화와 전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都城計劃

中央集權의 君主制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에서의 都城은 全時代를 통해 발달되고 지속되었다.

都城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입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都城속에는 자연적 조건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수성에 따른 독자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都城의 형태적인 특수성이 무엇인가를, 신라의 경주와 조선조의 한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都城과 비교하면서 고찰하기로 한다.

#### ●慶州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라 우선 경주 都城의 형태를 정리해 본다.

경주에는 최초로 王宮으로서 金城을 건립하였으나 國力이 신장된 6세기 초 중에 金城을 버리고 月城을 새로 지어 왕궁으로 삼았다. 이와 동시에 月城의 동편으로 바둑판 모양의 街路를 계획하여 소위 坊里制를 실시하였는데 坊里制는 같은 시기의 중국(隨·唐)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月城은, 山城인 新月城(半月城)과 王宮인 滿月城이 서로 접하여 있고 月城의 동편으로 시가지가 전개되어 있다. 이 시가지는 三國統一期에서는 다시 月城의 서편으로 확장되었으며 서편의 시가지에도 바둑판 모양의 街路區劃이 실시되었다.

皇龍寺나 芬皇寺와 같은 절들은 方型으로 구획된 대지조건 안에서 건립

되었으며, 절의 규모에 따라 方型街區의 네배를 차지하는 절도 있고 하나를 차지하는 절도 있다. 또한 경주에는 東市(市場)를 비롯하여 西市·南市가 존재했었다고 전한다.

각 市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都城의 계획에서는 王宮이나 寺院은 물론 시장의 위치까지도 정하여져서 용도에 따라 市街地域을 구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주는 중국의 都城制에 크게 영향을 입은 도시라고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신라 고유의 특성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都城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고 이를 경주와 비교하여 보자.

중국은 이미 周나라 때의 이상적인 都城의 형태를 규정하였다. 즉, 都城은 一辺 9里(=16,200尺)의 正方形의 全体形態를 취하여 셋으로 나누어진 세계의 大街路가 동서나 남북으로 서로 교차한다. 城内에는 중앙의 宮을 중심으로 <左祖右社·面朝後市>, 즉 왼쪽에 宗廟, 오른쪽에 社稷, 전면에 朝廷, 후면에 市場이 위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理想案이긴 하지만 중국의 모든 都城이 이를 따르지는 않고 있으며, 漢代나 宋·元·明·淸의 都城이 중앙에 宮殿을 두고 <左祖右社·面朝後市>의 기본구성을 이루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본적으로는 그 영향 아래에서 都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것과 다른 형태의 都城도 존재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唐의 수도 長安城이다. 長安城은 宮이 중앙이 아닌 北邊에 위치하고 있으며 宮의 전면으로 동서 각 5坊, 남북 13坊의 方型街區가 구별되어 있다. 宮의 전면으로 東市 西市가 있는 점도 중국의 다른 都城과 틀린 점이다.

그러나 중국 都城의 공통된 점은 모든 都城이 平地로 조성된 地形 위에 方形의 全体形態와 직각으로 교차되는 街路를 갖고 있어 인공적으로 정연하게 꾸며져 있고, 宮殿은 물론 城内의 宮署나 寺院·一般住宅들이 모두 方形의 街區 속에서 計劃·造營되었다는 것이다.

坊里制의 실시에 따라 경주의 寺院이나 住宅이 方型街區 안에서 계획되

어진 점에서 볼 때에도 중국의 都城, 특히 同時期의 長安城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경주의 坊里制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경주의 都城을 기본적으로는 경주 주변의 자연조건, 즉 地形에 의해 그 형태가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月城의 위치는 결과적으로 都城의 중앙 가까이가 되었으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중국과 같이 계획적으로 중앙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都市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게 된 것이므로 이것을 중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경주는 전체적으로 매우 불규칙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月城을 중심으로 한 경주의 地形이 野山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7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일본은 여러차례의 遷都를 하면서 平城京·平安京·藤原京 등의 都城을 건립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平地에 자리잡고 있으며 長安城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경주는 중국의 都城制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중국식의 坊里制를 채택하면서도 地形條件에 따라 고유한 都城形態를 유지하였다. 이것은 신라의 都城이 建國初期부터 王宮을 중심으로 성장된 곳에서 이동없이 점차 확대되어 간 데에 이유가 있지만 都城의 형태를 인공적으로 構築하기 보다는 오히려 地形에 맞추어 나가려고 했던 意圖에 더 큰 원인이 있겠다.

이러한 자연순응적인 경향은 경주 이외의 다른 都城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朝鮮朝의 수도 漢城이 그 전모를 잘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漢城은 조선조가 建國함에 따라 새롭게 計劃·造營된 都城이다. 한성에서 중국의 都城制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左祖右社>, 즉 宮의 왼쪽에 宗廟를 두고 오른쪽에 社稷을 두는 周 이래의 원칙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한성의 형태나 街區構成은 중국과는 매우 다른 조선조 고유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宮은 왼쪽으로 치우친 北邊에 山을 등지고 있으며 城의 전면으로 江을 바



그림 1. 경주都城의 제 1차計劃略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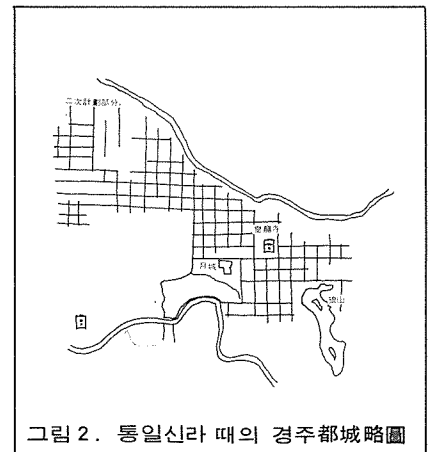


그림 2. 통일신라 때의 경주都城略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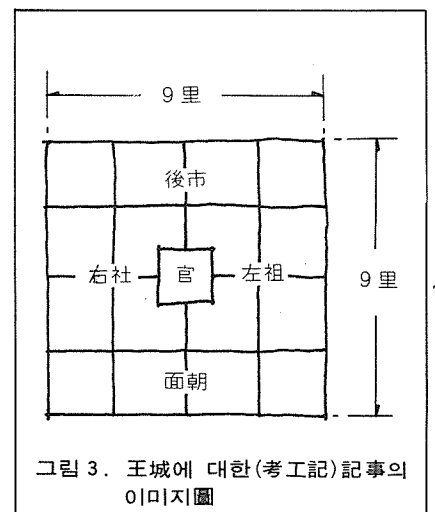


그림 3. 王城에 대한(考工記)記事의 이미지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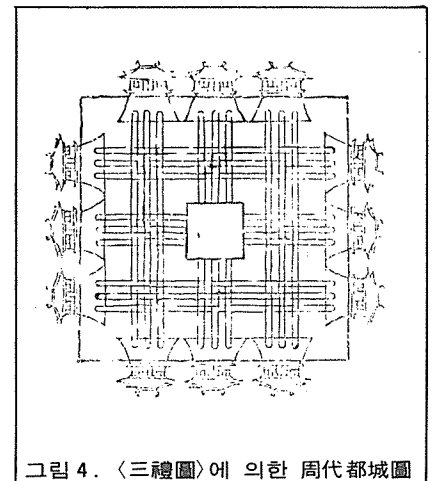


그림 4. <三禮圖>에 의한 周代都城圖

라보고 있다. (背山前川). 街路는 중국의 都城과 같이 모든 街路가 四通八達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도로가 城門으로 뚫려 있는 반면, 대부분의 小路들이 막다른 골목(cul-de-sac)으로 되어 있다. 이 점은 중국의 각 시대의 都城이 직각교차하는 街路로 구성되었던 것과 크게 다르다.

더우기 漢城은 地形이 남북으로 산을 끼고 산의 능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城郭의 전체형상도 지형에 맞추어 環狀을 이루고 있다. 城內의 街路도 主要大路를 제외하면 모두 자연발생적인 것이어서 地形에 맞추어 형성되고 있다.

이와같이 漢城은 宮이나 宗廟·社稷과 같은 기본이 되는 건물의 구성에서 중국 古來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城郭의 전체형태나 구성은 自然地形에 맞추어 나가는 고유한 형태를 취하였다. 이것은 조선조 말기에 새로이 計劃·造營된 水原城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水原城郭의 경우는 宮이 동편 산기슭에 차리잡고 그 전면으로 十字路와 개천을 중심으로 民家가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형태도 동서의 山頂을 環狀의 성곽이 연결하고 있고 남북으로 개천이 城을 가로지르고 있다. 水原城郭의 向은 漢城과 같지 않지만 背山前川의 地勢나 자연발생적인 街路등, 自然地勢에 의존하여 城郭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되고 있다.

경주나 한성·수원성은 공통적으로 自然地勢에 맞추어 都市全體의 형태를 형성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점이 중국의 都城과는 상반되는 성격이다. 街路는 경주만이 서로 직각교차되고 있으나 다른 도시의 경우는 모두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상의 우리나라 都城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背山前川>이라는 自然條件에 의존하여 자연발생적인 街路構成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 3. 伽藍計劃方法

인도의 STUPA나 중국의 伽藍은 하나의 舍利塔만이 사찰의 전부였다. 이들 최초의 塔은 外型이 가지는 상징성과 神聖性의 표현이겠으나 차츰 塔內에 공간을 구성하여 寺刹儀式이 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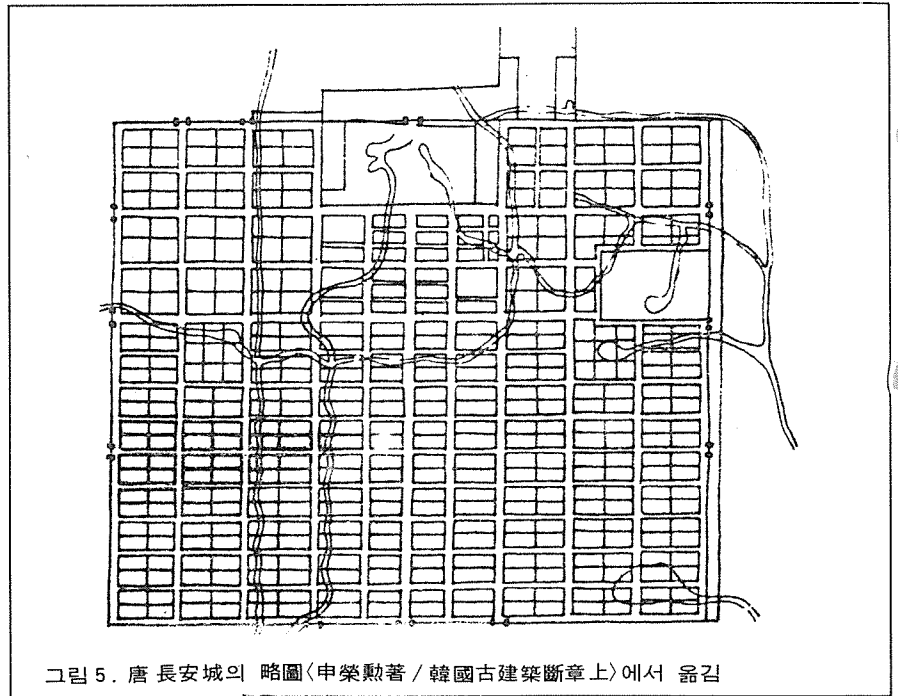


그림 5. 唐長安城의 略圖(申榮勳著 / 韓國古建築斷章上)에서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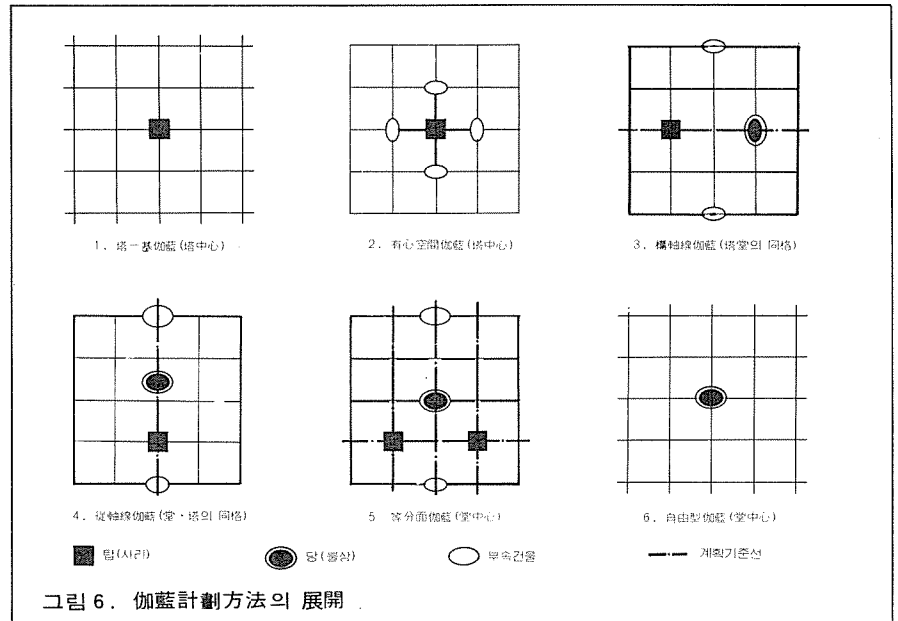


그림 6. 伽藍計劃方法의 展開

한국의 古代初期 사찰에서도 舍利가 있는 塔을 절대적인 신앙 및 儀式對象으로 하였으나 인도나 중국과 같은 塔 하나의 伽藍形式은 발굴된 바 없고 淸岩里寺址에서 우리의 最古伽藍 형식을 고찰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配置計劃方法은 塔을 중심으로 하는 有心空間을 구성하여, 인도·중국의 塔일기 사찰이 아닌, 중앙에 舍利塔을 사방에서 감싸듯이 門과 堂들을 배치하였다.

塔을 중심으로 하는 伽藍內에서의 모든 건축공간은, 직접 塔과 연결해야 하는 有心空間伽藍의 설계방법을 일반적으로 三堂式伽藍이라 칭하게 됨은 前述한바와 같이 방향과 위치의 의미

에서 기인된 것이다.

佛像이 출현되고 寺刹의 건물을 형성케 되면서부터 舍利塔을 중심으로 한 有心點이 설계의 기준이 되던 것에서 點에서 線으로 배치방법을 달리하였다. 불상과 사리가 同格으로 취급되어, 신앙의 意識의인 儀式空間 구성을 횡선 또는 종선으로 하여 塔과 堂을 연결하는 伽藍 배치는, 척도·면적 등의 모두율이 일단 線으로서 그 의미를 부각하고 규정지어 주는 設計計劃方法이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찾아 볼 수 없으나 일본의 法隆寺와 같은 塔과 全堂의 좌우배치는 舍利와 佛像이 신앙의 식과 종교의식의 同格의 위치에 있게

됨으로 伽藍의 위치에 意味가 설계방법을 유도케 한 것이다. 여기서는 단순히 건물의 질서를 잡는 설계방법만이 그 원인이 될 수 없고, 다만 주어진 양식과 敎理 등의 변수가 되는 禪·後世·慈悲·解脫·保護 등이 결국 일주문·해탈문·불이문·인왕문·금강문·루문·탑·당 등을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舍利나 佛像에 도달케 하였다.

그 과정은 기하학적인 건축설계 계획방법으로 성립케 하여 從線伽藍構成을 만들게 되었다. 종교건축이 가지는 기념성과 상징성이라는 형성의 전제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틀을 잡아 一塔式伽藍을 만들어 定林寺址·軍守里

寺址·法住寺·通度寺·双溪寺 등지에 서 그 실예가 나타나고 있다.

佛像이 있는 佛堂(보통 大雄殿으로 칭함)의 절대성에서부터 탑이 형성화 되어져 가고 舍利의 意織度가 낮아짐에 따라 2塔式伽藍을 형성하여 결국 불상의 강한 종교적 연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문과 대웅전·탑·강당·회랑은 주어진 대지를, 점이 아닌 선으로 구성된 面의 설계방법으로서 전개시켰다. 즉 불상의 대웅전을 대지의 중앙에 두고 문과의 사이가 되는 중·횡의 선은 중앙과 양편의 회랑과를 4등분하여 가람구성 요소들을 위치시켰다.

그 실예로는 感思寺址·四天王寺址

·佛國寺 등에서 그 계획방법을 볼 수 있다.

그 후, 佛舍利의 탑의 존재성이 약해지면서 완전히 대웅전 본위의 伽藍을 형성시켜 無塔式 또는 자유로운 空間構成伽藍을 만들어 계획방법의 총괄성이 경시되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자연의 조화, 불교에의 접근 또는 토착종교의 흡수 등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伽藍을 구성하는 計劃方法은, 주어진 자연조건과 종교·사회의 가변수를 가지고 點·線·面, 그리고 다시 點에서 확산된 방법론을 만들어 주었다.

## □ 해외화제

# 넓은 大型건물 解体 新工法

美로이드 美로이조社, 12초만에 부쉬

美國의 構造物 解体 專門業体인 로이조그룹 인터내셔널(Loizeaux Group, International)은 대도시 한 북판에서 수십층의 빌딩을 불과 2~3분만에 해체할 수 있는 구조물 해체 신공법을 개발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층 건물을 짓는 새로운 工法에 못지않게 남아버린 기존 건물이나 기타 構造物을 주변의 다른 건물에 피해를 주지않고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철거하는 工法의 개발은 필연적이면서 많은 난제를 안고있었다.

좁은 공간, 인명피해의 방지, 제거에 따른 수송문제의 해결 등등이 복합적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였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로이조 그룹은 이번에 말끔히 해결했다. 최근 同社는 LA 시까지 한북판에서 주변건물과 불과 20미터밖에 안 떨어진 15층의 건물을 아무런 피해없이 단 12초만에 해체해 냈다는 것이다.

외신보도는 특히 同社의 해체기술은 건물의 잔해가 트럭에 실어 나르기 쉽도록 적당한 크기로 건물자리 안에 그대로 내려 앉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工法은 큰 重力에다가 적은 폭약의 힘을 섞는 이치로서 건물이 지구의 引力에 의하여 地上에 세워지고 있다는 바로 그 原理을 역으로 이용해서



引力을 건물해체에 이용한 것이다.

同社의 경영자인 재크·로이조씨는 “우리는 다이너마이트를 해체작업에 이용하지만 그것으로 건물을 조각내거나 폭발력으로 직접 구조물을 해체하는게 아니라 구조물의 자체 붕괴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폭발을 이용하는것”이라고.

때문에 해체 작업에 들어 가기 전에 대상 건물의 設計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構造力學的계산이나 材料의 강도를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며 技術的인 측면에

서는 골똥을 예상했던 방향으로 쓰러트리거나 고층 건축물을 바로 그 밑으로 무너져 내리게 하는 계산 등을 세밀하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송 수단까지를 고려해서 잔해를 얼마만큼의 적당한 크기로 분쇄해야 하는가 하는 계산까지 해낸다는 것이다(\*).

□ 新築工法에 못지않게 비증을 차지하고 있는 解体工法의 개발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연구돼야 할 분야로 꼽히고 있다.